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통권 제 168호

발행일 : 2006년 4월 9일

발행처 :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성령님! 오시옵소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간절한 부르짖음!

길가에교회 특별새벽기도회 진행중, 지난 5, 6일 문동학 담임목사 인도



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본 교회 문동학목사는 4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회복을 위한 제물(눅 23:44~49)”,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눅 23:50~56)”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 했다.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고 있다. 찬양팀 『코람데오』를 인도하는 유범집사는,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실지? 기대 또 기대하며... 감사

지난 4월 3일(월요일)부터 시작한 길가에교회 특별 새벽기도회에 매일 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길가에교회 이인호목사는 “건강한 뿌리인가?(행 1:1~8)”, “새마음 이식수술(겔 36:16~28)”, “이제는 빛이라(엡 5:8~21)”, “숙제 검사하는 날(골 2:27~32)”의 제목으

함과 회개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번 특채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은사와 열매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는다.”고 확신 있게 말했다. 길가에교회 특별새벽기도회는 오는 4월 15일까지 남양주시 길가에교회에서 새벽 5시 20분에 계속된다.

30CUP 1주년 예배

3면

찬양학교, 하프타임 두루뭉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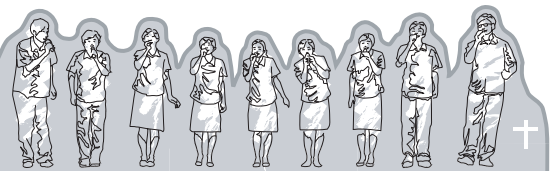
2면

성지이야기2

4면

희망의 트랙, 유치부

4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종려주일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 5시 30분 대예배실					성금요예배
16	17	18	19	20	21	22
부활주일	23	24	25	26	27	28
30						29

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 다양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양육클래스에 참여합시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육클래스 과목이 열린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과목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은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전 10시 30분을 전후로 교회에 모이고 있다. 양육클래스가 활성화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차문제이다. 주중의 교회의 주차공간확보는 주일과는 달리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장과 교정에는 주차할 수 없고

운동장쪽 구획주차장도 학교교직원우선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구역모임과, 선교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는 차들이 교정 안에서 뒤엉켜 많은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3면에 이어서)



지난 4월 6일 목요일 교회 안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요일제스티커

방과후학교 신설 미술반

“5-7명의 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매 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에서 새로운 미술반이 열렸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미술반은 기존의 프로젝트 공동작업형 수업과는 달리 미술기초이론과 실기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이 재미난 미술이론과 미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짜져 있는 이번 과목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다. 수업은 황아람교사(30CUP)가 담당하게 된다.

방과후학교의 신설된 미술반에서는 현재 5-7명의 중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평소 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은 물론 미술수업이 싫고 두려운 학생들 역시 이 수업에 모집대상이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은 황아람(016-548-6844)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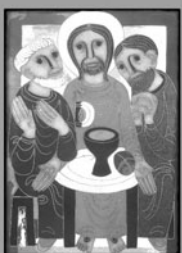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 “거기 너 있었는가” _ 오늘연주팀
- 현대무용 _ 장선정 (중앙대학교)
-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요?” (요한일서 4:10) _ 문동학 목사
- “above all” _ 오늘연주팀

“고칩니다” 지난호 길가에 교회 기사중 (1,3면), 자선바자회 일자는 3월 29일이 아닌 4월 29일입니다. 이에 정정하여 알립니다.

성금요예배

서울천왕대 컨터락
1AM / D.T.Cyberdale



2006년 4월 14일(금) PM 7:30 대예배실
제대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Misson 함줄함물,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노현정 1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노현정 2 “공부하세요”

무명씨 1 “.....”

'내리사랑'은, "손윗사람의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뜻합니다.

반대로,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치사랑'입니다.

'치는, "(일부 동사 앞에 붙어)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치뜨다/치단다/치반다/치숫다/치읽다처럼 쓴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도 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하프타임 연강, “건강법” 황의환교수



지난 4월 4일 화요일 하프타임 양육 모임에서 “뇌질환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신 황의환 박사의 강의를 있었다. 참석한 60여명은 경청과 질문을 반복하며 강의에 열중했다. 황박사는 먼저 한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오해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강의주제인 치매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치매에는 비만, 음주, 스트레스를 줄임으로 예방 될 수 있는 중풍치매와 복잡한 뇌 구조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치매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도 인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여성의 음식습씨변화와 남

성의 게으름도 이에 해당된다그러나 본인의 치매가능성을 지적하면 자기합리화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평소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는 것 이라고 한다. 지나친 일의 집착 혹은 무관심에 빠져 있는 사람, 부유하지만 완고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대가족을 이루어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치매의 예방법이며, 규칙적으로 사고하고 운동과 여행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른 것이며 활동적인 사람이 지나치게 정적이며 꼼꼼한 사람들 보다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손질이나 산책, 적당한 쇼핑을 즐기는 것도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황의환 집사의 열강은 2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되었다.

양육과목소개

찬양학교, 이해정 교수

“당신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양육과목 '소리, 하나님이 주신 악기'에는 매주 5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과목을 담당하는 이해정 집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는지 강연한다. 무엇보다도 호흡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바른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집사가 강조하는 호흡법은 복근을 이용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해 주며 잘못된 방법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고쳐주고 있다. 30여분간의 호흡법을 따라한 참석자

들은 어깨에 힘이 빠지고 자연스러운 공명의 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악보의 음계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선정된 가곡을 하나 부르는데도 마디마디 반복과 연습을 통해 다듬는다. 이 과목을 맡게 되었을 때 상당한 걱정을 했다는 이해정 집사는 참석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강의를 경험하면서 행복하다고 전한다.

강의의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는 솔로를 맡게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참석자들은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양육과정 / 두루뭉수리 함혜련 집사,

「빛과소금」 생활공예 연재

주님의교회 양육과목인 두루뭉수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함혜련 집사가 빛과소금의 고정집필자를 맡게 되었다. 함 집사는 10년간 직접 쌓아온 DIY*와 살림 노하우를 연재한다. 아래의 내용은 두란노 '빛과소금' 4월호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살림이스트 함혜련의 쉬운 DIY, 화사한 꽃등으로 집안 가득 봄내음」

봄이 왔다. 두꺼운 커튼부터 걷긴 했는데 겨우내 칙칙한 실내 분위기, 가볍고 화사하게 바꾸고 싶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조화로 쉽고도 효과 만점인 실내 인테리어 소품 몇 가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살림이스트 함혜련 집사의 10년 노하우가 담긴, 꽃등과 갈랜드, 초 장식 만들기예 도전해 보자...일명 Salimist(살림이스트) 혹은 비전공 아티

스트라고 불리는 그녀는 주님의교회에서 생활 공예 '두루뭉수리' 문화 강좌를 개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생활 공예를 가르치고 있다. 작고 하찮은 소품이라도 예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상한 달란트 덕분에 유아부 교사로 활약하면서 교회 대커레이션, 환경 꾸미기 등을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살림이스트 함혜련 집사에게 연재를 통해 어떤 바램이 있는지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접 만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실제로 두루뭉수리 강좌는 재료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구나 가족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 귀중한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함혜련 집사가 담당하는 문화강좌 “두루뭉수리”는 화요일 오전 교회에서 열리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웃들도 8명이나 참여하고 있어, 처음 실시하는 양육클래스 문화강좌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함혜련 집사는

일명 Salimist(살림이스트) 혹은 비전공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녀는 주님의교회에서 생활 공예 '두루뭉수리' 문화 강좌를 개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생활 공예를 가르치고 있다. 작고 하찮은 소품이라도 예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상한 달란트 덕분에 유아부 교사로 활약하면서 교회 대커레이션, 환경 꾸미기 등을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앞으로 '빛과소금, DIY' 지면을 통해 10년 간 직접 쌓아온 DIY와 살림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로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기술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인건비용을 줄여 가정 등의 크고 작은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비 혹은 기술습득 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제2여선교회 월례회 “생각한 것을 실천하라”



지난 4월 6일 12명의 2여선교회의 회원이 영아부실에 모여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선교회의 담당 김현령 목사는 "실천하라"는 주제로 말씀(행4:19~21, 빌 4:8~9)을 전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가르쳤다. 실천은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옥합 깨뜨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전했다.

예배 후 월례회를 가진 회원들은 점심을 같이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여선교회는 1948~1952년생까지의 모임이다. 매월 첫째 목요일에 월례회로 모이고, 둘째 수요일에는 시각장애할머니들의 집인 루디아의집에서 산책봉사를 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은영희회장(019-320-8174)

(1면에 이어서)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다양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양육클래스에 참여합시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내에서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수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정주차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반복되는 전체방송은 양육클래스의 흐름을 끊기도 한다.

주님의교회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 3번 출구와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고, 테헤란로와 잠실역을 향하는 수많은 버스가 지나가는 대중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몸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주차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한 교회와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래서 공존할 수 있으며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다. 성도들의 양해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운동장쪽 구획주차장, 이 구역은 주중 학교우선 주차장이다



동쪽 주차장, 이 구역이 교회우선 주차 구역이나 주차구역외에 주차된 많은 차들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나눔 바베트의 만찬, 30CUP MOVEMENT



30CUP 회원들이 지난 8개월간 모아온 바베트 만찬은 '나무를 심는 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나무를 심는 학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어린이 및 청소년 위탁보호기관이다. 헌신하는 한 목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돌봄의 대상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편모/편부이기에 나라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다.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있다. 30여평의 상가 건물에 30여명의 어린이들과 5명의 청소년이 방과 후학교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신앙훈련 또한 받고 있다. 특히 5명의 남자고등학생들은 작은 빌라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합숙을 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이들에게 임대료 월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소액의 후원자들의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30CUP의 바베트의 만찬 운동은 아직 조직적인 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처음으로 모아온 헌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더욱 조심스러운 검토가 있었다. 나무를 심는 학교가 바베트의

만찬의 목표에 부응하는 지원대상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었다.

지난 2월 초순 김현령 목사는 나무를 심는 학교를 돕고 있는 두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주님의교회에서 만났다. 그들로부터 그곳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그곳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운영하는 단체가 어느교단인가하는 기초적인 확인이 있었다. 나무를 심는 학교는 '합동정통' 교단의 한 교회의 적을 두고 있다.

그 후 수차례 그 곳 학교의 사회복지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담당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화의 과정에서 만일 30CUP이 이 단체를 돕게 된다면 어떠한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 지원의 원칙은 목적없이 월 얼마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을 돕겠다는 한가지였다.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는 두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그곳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일년치 차비를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비용에 해당하는 양질의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었다. 두가지 다 의미있는 일이고, 전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지원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더 쉬운일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30CUP은 후자를 택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게 되었다.

후원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후원자들을 새롭게 모으는데 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현재 인터넷의 무료카페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30CUP의 바베트만찬은 소그룹연합모임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나무를 심는 학교의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지원계약을 쓰기로 했다. 내용은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심는 학교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제작업체의 선택은 전적으로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관은 바베트의

만찬을 알리는 배너를 홈페이지 안에 달기로 했다.

4월 16일에 30CUP 1주년 기념 예배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될 것이다. 계약서와 견적서는 물론 제작과정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30CUP회원들에게 자세히 보고 될 것이다.

현재 바베트의 만찬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240여만원이다. 우선적으로 이 범위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고, 모자라는 잔액은 홈페이지 완성시점, 약 3개월 후에 지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30CUP은 바베트의 만찬에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전문 사역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회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을 찾아 바베트사역팀에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개인 혹은 기관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다.

1주년을 맞는 30대 사역이 다른 사람을 울수 있는 좋은 일을 하게 되어 모두들 기뻐하고 있다.

4월 16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는 30CUP 1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지며 이번 예배에 나무를 심는 학교의 교장인 심상혁목사가 초대되어 간증을 하게 된다.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게 된다.

또 이번 예배에 CCM 아티스트 장윤영씨도 초대되어 1주년을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현령 목사는 까마귀의 고민3, "For The Unreached"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도전하게 된다.

4월 16일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 30CUP 1주년 기념 예배

간증: "나무를 심는 학교" 심상혁 목사
말씀: 까마귀의고민3, "For The Unreached"
김현령 목사
특순: 장윤영 CCM 아티스트



유치부

유치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성극 연습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 행사 때 하는 성극은 유치부에 처음 온 신입교사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올해도 2006년 1월부터 처음 유치부 교사를 시작하신 장병남 선생님이 성극의 연출을 맡고 신입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성극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가롯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유치부 전도사와 교사들은 이번 부활절 성극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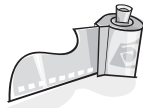
오늘 기도



나의 매임을 하나님 나라의 학장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지개의 꿈을 찾아 떠납니다." 5월 5일 오전 10시 주님의교회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어울려 뛰고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우리를 한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깊은 감동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4회 무지개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지/이/야/기 2

"이웃을 사랑하라는 간절한 교훈은 실천하기에 너무 어렵다."

펠루벤 성경사전 (F.N. Peloubet; 신학박사, 목사 1931 첫판권)에 기록된 성지의자연적 특색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지는 그 크기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세계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 전개된 무대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규모가 작다. 해발 1,700피트의 헤르몬 산줄기를 타고 해저 3,000 피트의 요르단 계곡과 사해까지 약 145마일 되는 이 지역의 평균 너비는 겨우 40마일로 United Kingdom 남서부 지방 웨일즈 크기이다. 그럼에도 이 작은 규모의 땅덩어리는 다른 모든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한 군데에 모아 놓은 축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갈릴리 호수, 산악지대와 해저지대, 사막과 초원, 평원과 경작지, 고원과 무수한 하천, 화산, 계곡 그리고 광야 등... 그만한 크기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하다. 100마일을 가는 여행객은 알프스산에서와 같은 눈에서부터 사해의 열대평원을 통과하게 된다. 얼음, 우박, 직열하는 태양, 사막바람을 만날 수 있고, 베들레헴 근방에서는 12월에도 목동들이 노천침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두 계절뿐이어서 성경에도 ‘겨울과 여름’, ‘추위와 열기’, ‘파종기와 수확기’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식물은 곤충지방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북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다. 전국토에서 대단위로 생산되는 포도, 세계 제일의 올리브, 가장 중요한 수확물 무화과를 비롯해서 아몬드, 바나나, 퀸스, 오렌지, 오디 등 각종 과실과 아스파라가스, 양상추 등 각종 고등채소가 재배되며, 다년생 나무로는 참나무, 호두나무, 특히 아카시아가 풍성하게 자란다. 야생꽃이 특히 유명해서 500여종에 달하고, 각종 곡물 또한 풍부하다. 동물들 역시 북구와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자칼, 하이에나, 여우, 이리, 바늘두더지, 멧돼지, 다종의 다람쥐 등이 서식하고 있고, 당나귀, 노새, 낙타, 버펄로우, 양, 특히 염소(많은 젖을 공급) 등 가축들 외에 독수리(벌취, 이글, 호크) 및 부엉이를 비롯한 야생 종류들이 고루 살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 땅에는 유난히도 벌레가 많아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비탈진 바위들 틈새와 평 뚫린 나무들의 구멍 속에 야생꿀이 가득히 괴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집을 갖다 놓기가 무섭게 꿀이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한다. 삼손이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

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 떠났을 때, 길에 뒹굴고 있는 사자의 뼈다귀 위에 벌레와 꿀이 잔뜩 엉겨 붙어 있어 그것을 손으로 훑어 가지고 먹으면서 길을 걸었고,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다(삿 14:8-9). 전투 중, 수풀 속에서 흥건히 흐르는 꿀을 손으로 짖어 먹고 눈이 밝아진 요나단(삼상 14:25-26)이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야생꿀)으로 주린 배를 채워야 했던 세레 요한의 이야기(마 3:4)들은 이것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썸의 후손이다. 썸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장 노아의 맏아들이다. 썸의 다섯 아들 중 앗수르(Asshur? 창 10:22)가 있다. 그 이름에서 티그리스강 유역에 앗시리아 왕국(창 2:14)이 생겨났다. 바벨론 왕국은 바벨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벨은 모험심 많은 사냥꾼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다.(창 10:6-10) 니므롯은 구스에게서 태어났고 구스는 함에게서 출생했다. 그리고 함 역시 노아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주전 7~6세기에 걸쳐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차례로 패망시키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들을 강제 추방한 앗시리아와 바벨론 두 왕국은 모두 한 조상 노아의 핏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반세기에 걸친 기나긴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족은 비록 그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존속해 갔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2000년이 훌러간 지금도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민의 긍지를 품고 물려받은 약속의 땅을 사수하고 있는 한편,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한 혈통 아랍계 민족들이 제각기 그들의 영토에 경계를 긋고 요단강 건너 서쪽, 그들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을 향해 대항해 서있다.

시오니즘과 이슬람의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대결이 제 삼국의 중재로 마침내 화해의 무드로 와해되는가 싶었지만, 양측 대표들이 굳게 잡았던 악수의 열기는 곧 싸늘하게 식어갔고, 끔찍한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그 후 십여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 양측의 평화협정이 조인되었던 당시(1993) 주간 타임지의 한 기사는 그의 의구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간절한 교훈이면서도 실천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그래서 사자와 양이 나란히 누우면 모두가 잠깐 놀란다. 중요한 하도 사나운 것이어서 그것이 쏘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진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민족사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지, 금세기와 후세 세대들은 이를 지켜 볼 것이다.

최종업 성도